

근대 미술비평의 전모 복원한 실증적 역작

《한국근대미술 비평사》 펴낸 최 열씨



《한국근대미술의 역사》를 통해 우리미술의 근대성을 추적한 바 있는 최 열씨가 그 작업을 비평분야에서 심화시킨 《한국근대미술 비평사》를 내놨다. 이 책은 비평의 암흑기로 규정된 19세기와 식민지시대에 활동한 평론가와 화가들의 활동을 철저한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근대 미술비평이 성장해온 모습을 오롯이 되살려냈다.

비평가는 차갑고 역사가는 따뜻하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때론 비평가의 시선도 오후 햇살 같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항상 자신의 내면에 소명의식이란 '군불' 을 지피는 역사가의 그것에 비할 바는 아니다.

미술사 연구와 미술인 전기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미술평론가 최 열씨(46, 가나미술연구소 기획실장)가 최근 《한국근대미술 비평사》를 내놨다. 이 책은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미술비평의 역사와 이론을 시기별로 특징화해 기술한 최초의 근대미술비평 통사다. 거시적인 담론부터 난만한 이론논쟁, 관찬문헌, 개인문집, 서한에 이르기까지 비평의 자장에 속하는 역사적 흔적을 최대한 실증적으로 복원했다.

근대비평의 기점 19세기로 끌어 올려

이 책이 대상으로 삼은 19세기와 식민지시대 '미술 평문' 들은 그동안 잡문이나 '한가한 소리' 짬으로 업신여김을 받다가, 얼마 전부터는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기에 무덤 속의 시신을 꺼내 사당에 봉안함으로써, '잡문' 에 '비평' 의 위상을 부여한 최씨의 이번 작업은 고학적인 의의가 있고, 그건 보통의 애정으로 되는 일이 아닌지라 새삼 인간을 향한 역사가의 '뜨거운 피' 를 생각나게 한다.

"역사가는 애정과 엄격함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응달은 데우고 양달은 식힐 줄 아는 현명함이 필요한 거죠. 우리 근대미술 비평은 흑한 시대입니다. 열매는 있지만 그 나무가 통째로 빙하에 묻혀 있었죠. 전통은 볼 줄 모르고 박래품만 애지중지하는 우리 논객들의 입에서 얼음 바람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최씨가 맨 처음 문제삼는 것은 서구추수주의로 인한 '전통

단절론' 이다. 서구의 비평형식이 도입되기 전인 20세기 전후에 미술 비평이 부재했다는 인식은 미술평론가 이경성이 말문을 연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미술비평을 "글재주에 따라 자기 멋대로 논리를 전개시키는 일종의 수상 같은 것"으로 폄하하며 20세기 전반기를 '비평의 원시시대' 로 파악했다. 이어서 이구열 또한 "1930년대에 서야 비평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면서 단절론의 꼬를 깊게 짚었다. 이는 근대비평이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야 자리잡았다는 '1960년대 형성론' 으로까지 나아가서 일반화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과거와의 절연의식은 비평 자체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1973년 정양모의 <조선 전기의 화론>이 발표된 이래 1998년 유홍준의 《조선시대 화론 연구》(학고재)가 나올 때까지 미술비평과 이론, 미학에 관한 연구논문은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조선시대에 그림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근거는 '중국화론' 이라고 모두 생각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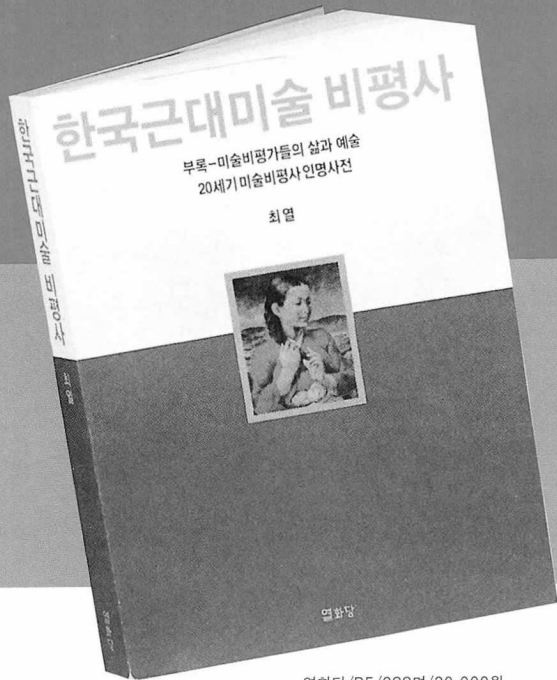
이 책에서 최씨는 근대의 범위와 비평사 서술방식에 이르는 문제들 자체를 새로 짚다. 우선 근대의 기점을 19세기 초로 끌어올렸다. 사실 19세기에 대해서는 진경시대의 문예부흥과 '사실주의' 정신이 급격히 퇴조했다는 게 통상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최씨는 이 시기부터 '비평행위' 가 본격화됐다고 주장한다. 조금은 도발적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신감각을 익힌 중인 출신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평집단에 주목한다.

"가장 조직적이며 활기가 넘쳤던 옥계사, 19세기 중반의 서원시사, 대원군이 후원했던 칠송정시사, 최대의 예술가 조직 벽오사 등은 18세기까지 사대부들의 비정기적 시회와 달리, 정기적인 집회의 성격을 갖추고 활발한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신감각 익힌 중인 출신 예술가 집단에 주목해

당시 화가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평가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미학의 꿈을 갖췄으며, 깊이 있고 체계적이라고 최씨는 말한다.

"난을 치는 데는 반드시 세 번 굴굴리는 것으로 묘법을 삼아야 하는



열화당/B5/288면/20,000원

데, 이제 내가 그린 것을 보니 붓을 한 번 쭉 뽑고 끝내 버렸구나. 꼭 삼 전하는 것을 익혔으면 좋겠다.”

제자를 혼쫌내는 김정희의 기법이론 및 문자향서권기론이다. “먹칠 하여 늘어놓으면 그림이 되고 글자로 모아놓으면 시가 된다”며 그림 평을 시로 지어 표현한 신 위의 글들도 볼 만하지만 가장 ‘비평다운’ 것은 조희룡에 와서야 볼 수 있다. 그는 형식규범을 반대했으며 “실제로 있지 않는 것을 실제답게 만든다”는 ‘화리진경론’을 통해 예술의 허구성을 인정하는 유연한 심미의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19세기 비평은 자연에 근거지를 뒀다가 점점 도시와 정치쪽으로 진출했어요. 그 경향 또한 뜻의 새로움과 활기보다는 문장의 기교와 서술의 재주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형식주의 비평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김복진을 이론적 필두로 조선미술론 형성돼

20세기로 넘어와서는 서구미술이론의 유입과 함께 고유성과 이식성이 대립되는 과정, 조선미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조선미술론’의 형성과 성장과정, 프롤레타리아 미술론 대 심미주의 미술론이 상호 대립하며 치열한 논쟁을 거듭하는 과정 등을 순차적으로 다룬다. 또한 중요한 이론가인 김복진, 임 화, 김용준, 윤희순 등에 대해서는 작가론을 개진했다.

최씨가 가장 주목하는 인물은 김복진이다. 그는 김복진을 당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과의 관련 하에 급진적인 조선미술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비평가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자각, 근대세계가 지향하는 진보적 역동성을 따라 분방한 신세계를 향한 새로운 탐구 정신을 보여준 한국근대비평의 ‘봉우리’ 자 비평의 지형도를 형성하는 중심축으로 평가한다. 김용준, 심영섭, 이태준은 김복진과의 대척점에서 골동취미를 통한 상고주의를 외쳤고, 임 화와 안석주는 김복진

의 계급성 이론을 심화했으며, 윤희순의 민족주의 미술론은 계급미술 사상이 잦아들 무렵 창작의 방향을 이끌 새롭고 유력한 사상으로 등장했다.

“비평사는 결국 사상사와 정신사로 귀결되지만 이번 작업에서는 미처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모으기와 요령 있는 지형작업에만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이죠. 시대의 풍경만 영성하게 내걸린 풀이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더 깊은 안쪽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책의 부록으로 주요 미술비평가들의 삶과 예술, 애환을 그려낸 일종의 ‘소전’ (小傳)이 실렸고, 근현대 시기 미술비평가 189명의 약력과 연구사항을 공들여 모은 ‘20세기 미술비평사 인명사전’을 덧붙였다. “사실과 실증”을 강조하는 역사가의 임무가 이로써 완성된 것이다. —강성민 기자

이 땅에서 자라난 것들로 역사 채워가기

최 열씨는 우리 것과 남의 것에 유난히 민감하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그는 재학 시절 김용제의 《미학 예술학 개론》과 김태오의 《미학개론》을 읽었다. 모두 미술학과의 전공도서들이었다. 당시 그는 “배움이 짧았지만, 서구 미학을 거의 그대로 옮겨다놓은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조희룡이 “중국중심주의를 내면화한 김정희의 아류”라는 평가도 그를 불편케 했다. 조희룡의 작품을 보면서 “폭풍 같은 힘”을 느꼈고, 또 김정희와는 그 풍이 너무 달라 보였는데 어떻게 사제관계가 됐는지도 궁금했다.

대학 졸업 후 군대에 간 최씨는 정훈병으로 발령이 나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다. 거기서 그는 1970~80년대 미술을 통해 시대사상을 들여다본 《한국근대사회 미술론》(1981)을 쓰게 된다. 그는 “자료를 찾고 정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으로 연결됐다”고 한다.

제대 후 민족미술협의회 간사,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회원으로 미술운동에 뛰어들면서 한차례 투옥되기도 하는 등 신산스런 1980년대를 보냈다.

“1980년대 리얼리스트들은 난폭하고 조악하다는 비난을 받았습시다. 하지만 요즘 들어 종종 전시장에 내걸린 당시 작품들은 오히려 암전해 보여요. 포스트모던이니 설치니 해서 미술을 해체해려는 난폭행위들이 판을 치기 때문이죠.”

《가나아트》 편집장을 몇 년 동안 맡으면서 기호학, 해체론, 페미니즘, 포스트마르크스주의 등에 완전히 질러버렸다고 한다. 현란한 이론과 서구인명 나열하기가 비평의 권위로 이어지는 현상에 신물이 났던 것이다.

“예술이 삶에서 소외되고 지적 유희로 변해가는 형국에, 예술을 실천하는 길은 그것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부터 그는 본격적인 미술사 저술작업을 펼쳐왔다. 《한국현대미술운동사》《민중미술의 이론과 실천》《한국 만화의 역사》《근대 수묵채색화 감상법》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1998년 《한국근대미술의 역사》를 저술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엔 나온 책도 바로 앞의 작업 때문에 가능했고, 또 그것의 연장이라는 것이 최씨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1950년대 미술비평사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원 등을 통해 이권다툼이 치열했던 당시 글들에서 ‘비평’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